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페루









Republic of Peru

2021년4월14일 | 선임조사역(G2) 안영은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안정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일반개황

면적 1,285천 km ² 	인구 33.5백만 명 (2020 ^e)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대외정책 경제실리외교 
GDP 2,038억 달러 (2020 ^e) 	1인당GDP 6,084 달러 (2020 ^e) 	통화단위 Nuevo Sol(Ns) 	환율(U\$기준) 3.49 (2020 ^e) 

- 페루는 남미 북서부에 위치한 태평양 연안국으로, 에콰도르, 콜롬비아, 브라질, 볼리비아 및 칠레와 국경을 접하고 있음. 면적은 한반도의 6배 수준이며, 2020년 기준 GDP(2,038억 달러) 및 인구(33.5백만 명) 규모는 각각 중남미 제6위 및 제5위 수준임.
- 구리, 금, 아연 등이 풍부한 광물자원 부국으로, 원자재 생산·수출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아 원자재 국제가격 및 글로벌 경기 변동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음.
- 2016년 대선 이후 여소야대 정국 하에서 탄핵 및 자진 사퇴 등으로 대통령이 세 차례 바뀌고 국회가 해산되는 등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고 있음. 한편, 부정부패 만연, 불법 코카인 재배 및 마약 거래와 관련된 치안 불안, 광산 개발 등과 관련된 원주민 시위 등은 사회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안데스공동체(CAN) 등 역내 정치·경제 공동체뿐만 아니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참여하고 역내외 국가들과의 FTA 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경제협력 대상국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63. 4. 1 수교 (북한과는 1989. 11. 21 수교)

주요협정 사증면제협정(1982),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1984), 문화협정(1988), 투자보장협정(1994), 관광협력협정(2003), 범죄인인도조약(2005), 자유무역협정(2011), 무상원조협정(2013), 이중과세방지협약(2014), 형사사법공조조약(2016), 사회보장협정(2019)

교역규모

(단위 : 천 달러)

구분	2018	2019	2020	주요품목
수출	802,926	743,728	485,263	자동차, 합성수지, 농약 및 의약품
수입	2,474,365	2,317,814	2,756,311	동광, 천연가스, 아연광, 수산가공품

해외직접투자현황(2020년 말 누계, 총투자 기준) 71건, 2,954,762천 달러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e
경제성장률	4.4	2.1	4.0	2.2	-11.1
소비자물가상승률	3.6	2.8	1.3	2.1	1.8
재정수지/GDP	-2.2	-2.9	-2.0	-1.4	-8.4

자료: IMF

코로나19에 따른 대규모 경제 충격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국제가격 호황 등으로 경기 회복 전망

- 페루는 대다수의 중남미 국가와 달리, 집권정당의 정치적 노선에 관계없이 친시장·친기업 기조를 꾸준히 유지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우호적인 투자여건을 조성하여 왔으며, 지속적인 재정건전화 노력, 예측 가능한 통화정책 등 투명한 거시경제정책을 토대로 2000년 이후 견조한 성장세를 보여 왔음.
- IMF에 따르면 2000~19년 중 페루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4.8% 수준으로, 같은 기간 중남미 전체 평균 경제성장률인 2.5%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한편, 페루는 지난 20년간 경기 부침을 거듭한 역내 주요국 대비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성장세를 시현한 것으로 확인됨.

페루의 경제성장률 추이 - 중남미 주요 6개국 비교(2000~19년)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21

- 구리, 아연, 금 등 광물자원 수출 비중이 총 상품수출의 59%*(2019년, IHS Markit)에 달하며, 전체 GDP에서 광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9%(2019년, Trading Economics)에 이르는 만큼, 주요 원자재 국제가격 및 글로벌 경기 변동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좌우되는 구조적 특성을 보이고 있음.

* 총 상품수출 대비 비중(2019년, Trademap) : 구리(정광 포함, 29.8%), 금(14.9%), 아연(3.6%), 철광석·납(4.2%), 은(0.7%) 등

- 2014년 중반부터 원자재 국제가격 하락세가 뚜렷해지면서 페루의 연간 경제성장률도 2014년 이후 5%선을 넘지 못하고 있음. 2017년에는 구리 국제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엘니뇨에 따른 재해 발생(피해규모 약 40억 달러), 오데브레히트* 부패 스캔들에 따른 인프라 투자 연기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2% 초반에 그쳤음.

* 중남미 대형 건설회사인 브라질 오데브레히트(Odebrecht)사가 자국 국영석유회사 페트로브라스를 매개로 브라질, 페루,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등의 고위급 관료·정치인 및 기업인에게 거액의 뇌물을 공여한 사건

국내경제

구리 국제가격 추이(2010~20년, 미 달러/톤)



자료 : LME

- 2018년에는 엘니뇨 재해복구 사업 등 인프라 투자가 증가하면서 경제성장률이 4%대를 회복하였으나, 2019년에는 구리 등 원자재 국제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상품수출 규모가 전년대비 2.8% 감소한 가운데, 제1위 수출대상국인 중국*의 경기 둔화(2018년 6.7% → 2019년 5.8%, IMF), 미·중 무역갈등 고조 및 글로벌 경기 위축 등의 여파로 경제성장률이 2% 초반대로 다시 하락함.

* Trademap에 따르면 2019년 중 총 수출상품의 29.2%, 구리(정광 포함)의 66.7%를 중국에 수출하였음.

- 한편,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3월부터 시작된 대규모·장기간의 봉쇄조치로 광산 개발을 포함한 주요 경제활동이 마비되며 총수출(전년대비 -16.7%) 및 외국인투자 유입액(전년대비 -76.8% 예상, 페루 중앙은행)이 급감하고, 실업 증가(리마 실업률(IMF) : 2019년 6.6% → 2020년* 13.6%) 및 가계소득 감소로 민간소비(2019년 GDP의 65.7%)도 전년대비 -8.6% 감소하는 등 경제활동 전반이 위축되며 역내 주요국* 중 최저 성장률(-11.1%)을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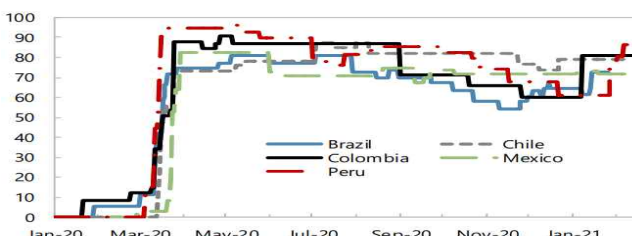
* 중남미 주요국 경제성장률(2020*, IMF) : 브라질(-4.1%), 칠레(-5.8%), 콜롬비아(-6.8%), 멕시코(-8.2%), 아르헨티나(-10.0%)

- IMF(2021.3월 Staff Report)는 페루의 산업구조상 관광업, 도소매업 등 대면서비스업 종사자 비중이 높고 주변국 대비 낮은 인터넷 보급률 등 디지털 업무환경 미비로 재택근무 실시가 곤란하여, 정부의 강력한 봉쇄조치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는 동시에 경기 침체가 가중되었다고 설명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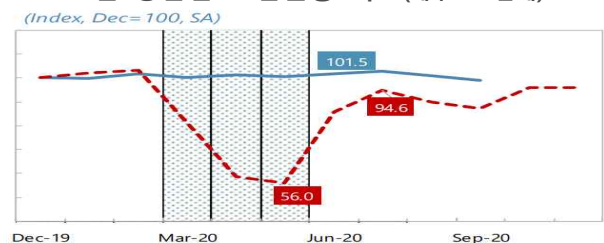
- 페루 정부는 3.16일부터 전국적 봉쇄조치를 단행한 후 5월부터 10월까지 4단계*에 걸쳐 산업활동을 재개하였으며, 광산개발 중단 타격 등으로 2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 -30.1%를 기록하였음. 단, 하반기부터 봉쇄조치가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GDP의 약 20%에 달하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시행되는 가운데, 중국 등 주요국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구리 수요 증가로 구리 국제가격이 상승세로 반전하면서 3분기 경제성장률 -8.9%, 4분기 경제성장률 -1.7% 등 경기 회복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음.

* [1단계/5월] 중금속 일부 채굴, [2단계/6월] 중금속 전면 채굴, [3단계/7월] 경금속 전면채굴, [4단계/10월] 서비스업 개시

중남미 주요국 봉쇄조치 강도 비교



2020년 광산업 조업현황 비교(페루 vs 칠레)



자료: (좌·우) IMF, Staff Report for the 2021 Article IV Consultation, March 2021,

(우) 적색선 페루, 청색선 칠레

국내경제

- 전망기관별 편차는 있으나 페루의 2021년 경제성장률은 7~9%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IMF에 따르면 이는 가이아나, 파나마와 함께 역내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로, 구리 등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출 및 외국인투자 유입 확대, 정부의 인프라 사업 추진 등 공공지출 확대, 경기부양책 및 백신 공급 등에 따른 민간 소비심리 회복, 2020년 역성장에 따른 기저효과 등이 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임.
- **(수출)** 코로나 팬데믹 이후 빠른 속도로 경기 회복 중인 중국의 산업수요 증가, 미국·유럽 등 선진국의 친환경 인프라 투자 확대 조짐 등에 힘입어 최근 국제시장에서의 구리 선물가격(3개월물, '21.4.9자 기준, LME)은 톤당 8,984달러까지 상승하면서 2011년 9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음.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톤당 가격이 4,688달러까지 하락했던 전년 동기(2020.3월)의 약 2배 수준으로, 2021년 페루의 구리 생산량(Fitch Solutions) 및 총 상품수출(EIU)은 각각 20%, 30.8% 증가할 전망이다.
- **(인프라·외국인투자)** 페루 정부는 2021년도 정부 예산 편성시 인프라 투자 부문에 약 7%를 배정(전년 대비 +0.8%p)하였으며, 경기 부양 및 고용 창출을 위해 대규모 인프라 사업 개발을 추진 중임. 2019년 7월 페루 정부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개발계획'을 발표하고 교통·통신, 에너지, 상하수도 개발 등을 포함한 52건(300.6억 달러 상당)의 우선사업을 선정하 바 있으며, 2021년 2월 페루 투자청은 2021년 중 37건(약 80억 달러)의 인프라 사업을 PPP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함. 한편, EIU는 광물 가격 호조 등에 힘입어 2021~25년 중 연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이 GDP의 평균 3.3%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 **(민간소비)** 2021년 1월부터 코로나 2차 확산이 시작된 가운데, 페루 정부는 GDP의 1.1%에 달하는 경기 부양책을 추가 발표하였음. 이는 코로나 취약 지역 주민 앞 현금 지급(24.3억 솔, 6.6억 달러 상당) 및 세금 납부 기한 연장, 백신 구매 등 보건·의료 지원, 중소기업 앞 대출보증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정부의 지속적인 경기부양 노력 및 백신 공급 등에 힘입어 2021년 민간소비는 전년 대비 5.1% 증가할 전망(EIU)임.
- 단, 코로나 2차 확산으로 인해 페루 정부가 1분기 중 취약지역 중심으로 봉쇄조치를 단행함에 따라 경기 회복 추세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백신 공급 지연으로 코로나 종식이 늦어지거나, 포퓰리즘 성향의 정부 집권(2021.4월 대선 예정)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글로벌 투자심리가 위축될 경우 경기 회복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주요 기관별 페루 경제성장률 전망

경제성장률 전망(%)	IMF ('21.4월)	WB ('21.1월)	ECLAC ('20.12월)	EIU ('21.4월)	Fitch Solutions ('21.2월)	페루 중앙은행 ('21.3월)
2021년	8.5	7.6	9.0	8.5	7.2	10.7

자료: 각 기관 발표자료

국내경제

확장적 통화정책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중앙은행 목표치 내에서 관리 가능할 전망

- 페루 중앙은행은 2002년부터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하여 소비자 물가수준을 관리하고 있음. 2016년에는 솔화 가치 하락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엘니뇨 여파로 인한 식료품 가격 인상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중앙은행의 관리목표 물가수준(2±1%p)을 초과하였으나, 2017년 이후 3%선을 하회하며 역대 주요국 대비* 비교적 안정적인 물가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 중남미 주요국 소비자물가상승률(2020°, IMF) : 브라질(3.2%), 칠레(3.0%), 콜롬비아(2.5%), 멕시코(3.4%), 아르헨티나(42.0%)
- 2020년에는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둔화,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연료 수입가격 하락(2019년 원유·가스 수입액이 총 상품수입의 14.2%, Trademap) 등이 물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연평균 1.8%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록하였음. 한편, 2021년에는 유가 상승세에 따른 연료 가격 상승, 라니냐 현상에 따른 농산물 공급의 일시적 차질 등으로 1~2월 월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각각 2.7%, 2.4%에 달했음. 단, 2월 기준 근원인플레이션율(곡물 이외의 농산물, 석유제품 등 외부 충격요소 제외)이 1.6% 수준으로 높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2021년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2.0%, IMF)은 중앙은행의 목표범위 내에서 유지 가능할 전망이다.
- 페루 중앙은행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의 경기부양책 지원을 위해 2020년 3월과 4월 각각 100bps씩 금리를 인하하여 사상 최저수준의 기준금리(0.25%)를 책정하는 등 확장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현재 물가수준이 중앙은행의 관리목표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경기 회복을 위한 시중 유동성 공급 및 기업·개인 앞 대출금리 인하 필요성 등을 감안시, 정부의 경제정책이 정상화 되는 2022년 이후 통화정책이 긴축 기조(2022년 기준금리 0.75% 예상, Fitch Solutions)로 돌아설 전망이다.
- 페루 중앙은행은 2020년 3월 금융기관의 현지화 지급준비율을 5%에서 4%로 인하하여 20억 솔 상당의 유동성을 창출하였음. 한편,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고안된 기업 앞 대출보증 프로그램(Reactiva Perú)을 통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저리의 유동성(2021.2월까지 646억 솔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 변동환율제를 운용 중인 페루는 투명한 거시경제 정책, 정부의 재정건전화 노력, 부분적 달러통용화(Dollarization)* 정책 등으로 인해 미달러화 대비 솔화 환율이 최근 수년간 3.3달러/솔 수준에서 유지되어 왔음. 단,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 개도국 자산에 대한 투자심리 냉각 여파 등으로 2020년 말 환율은 전년동기(3.31달러/솔) 대비 9.2% 상승한 3.62달러/솔을 기록하였으며, 2021년 3월말 3.77달러/솔 까지 추가 상승하였음.
 - * 페루 정부는 대외충격 방어 및 통화주권 회복 등을 위해 현지화 이용률 확대 정책을 지속해 오고 있음. 이에 따라 페루 내 달러화 표시자산은 지난 18년 간 금융기관 유동성의 약 65%에서 26.3%, 민간여신잔액의 약 75%에서 21% 수준으로 감소함(2020.10월 기준).
- EIU는 페루의 마이너스 실질금리* 기초, 최근 미 국채수익률 상승 경향, 정권 불확실성 등에 따른 투자자 불안심리 고조 등으로 2021년 상반기 중 솔화 가치 하락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음. 단, 최근 구리 국제가격 상승 등에 힘입은 솔화 환율 반전(2021.4.9. 현재 3.63달러/솔), 대규모 외환보유액(2020년 말 716억 달러)을 활용한 중앙은행의 환율 방어능력 등 감안시 환리스크는 감내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됨.
 - * 예상 인플레이션율을 감안한 금리 수준을 의미함. 페루의 기준금리가 0.25%로 매우 낮은 반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당분간 중앙은행 목표수준인 1~3% 수준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실질금리는 역(-)의 수치로 계산됨.

국내경제

코로나19 대응 지출에 따른 재정수지 적자폭 확대 이후 점진적 개선 전망

- 페루 정부는 ①GDP 대비 공적채무 비율 30% 이하, ②2021년까지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 -1% 달성이라는 재정특별법 하에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을 지속하여 왔으며, 이에 따라 2019년 기준 GDP 대비 공적채무 비율은 27.1%,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1.4% 수준까지 개선되었음.

- 단, 구리* 등 광산업 관련 재정수입 비중이 높아 원자재 국제가격 변동에 따라 재정수지가 좌우되는 점, 공무원 임금 지급(재정지출의 약 30%), 재화 및 서비스 구입비용 등 경상지출 비중이 재정지출의 약 80%에 육박하는 점 등은 구조적 한계로 지적되고 있음.

* 구리 광산 관련 법인세 및 로열티 수입이 연간 세수의 약 11%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IHS Markit)

연도별 재정수지 및 조세수입(GDP 대비 비중, %)

	2018	2019	2020 ^e	2021 ^f
재정수입	19.4	19.9	18.0	18.3
조세	14.5	14.8	13.5	14.0
재정지출	21.4	21.3	26.4	23.1
경상지출	16.5	16.8	21.9	18.7
재정수지	-2.0	-1.4	-8.4	-4.8

2020년 경기부양책 편성 및 집행(GDP 대비 비중, %)

	편성	집행
경상비용	7.4	5.1
보건·의료	0.9	0.8
가계지원	2.8	2.4
고용창출	1.1	0.6
특별비용	11.6	21.3
대출보증	9.6	8.2
총계	19.0	14.0

자료: IMF(March 2021)

- 2020년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수출 감소 및 경기 침체에 따른 관세·법인세 등 세수 감소, 가계 부담 경감을 위한 세금 납부기한 연장 등으로 재정수입이 전년 대비 9.6%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코로나19 타개를 위한 대규모 경기부양책 시행 등으로 재정지출이 전년 대비 23.9% 증가함에 따라 재정적자 규모가 GDP 대비 -8.4%에 달하였음. 페루는 정부의 적극적 유동성 공급을 통한 경기 부양을 위해 2020~21년 중 재정특별법 준수 의무를 한시적으로 유예한 상황임.
- 페루 정부는 2020년 중 취약계층 앞 현금 지급 및 식료품 지원, 보건·의료체계 강화, 코로나 피해기업 앞 유동성 공급 등을 골자로 하는 대규모 경기부양책(GDP의 19% 상당)을 발표하였으며, 2020년 말까지 경기부양책 예산의 약 3/4가 집행된 것으로 확인됨(IMF).
- 페루 중앙은행에 따르면, 기업 앞 대출보증 프로그램(Reactiva Perú)을 통해 2020년 말까지 50만 2천여 개 기업(50인 이하 영세기업 99.1%)에 대해 총 580.9억 솔 규모의 저리자금(평균금리 1.4%)을 공급하였으며, 이를 통해 278.2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시현한 것으로 확인됨.
- 또한, 저소득층 앞 현금 지급(가구당 760솔, 총 680만 가구 지원) 및 비상식량 제공(총 2.1억 솔), 월소득 1,500솔 미만 근로자 35%에 대한 보조금 지원, 의료물자 구매(총 20억 솔) 및 의료진 앞 보조금 지원(1인당 760솔), 도로 정비사업 등을 통한 단기 고용창출 프로그램(100만개 창출 목표, 64.4억 솔 배정)도 병행함.

국내경제

- 단, 페루 정부의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가계소득 지원책의 일환으로 2020년 4월 민간연금 가입자들의 연금 중도인출(최대 25%) 허용법안이 국회를 통과(2020년 중 332억 솔 인출)하였으며, 2020년 8월에는 국회가 국민연금 인출법안(1인당 최대 1,200달러)을 승인하면서 재정부담 가중(약 37억 달러 예상) 외에 포플리즘 성향의 정책 추진에 대한 투자리스크 고조 및 글로벌 차입비용 증가 우려 등이 제기되고 있음.
- 한편, 2021년에는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세수 증가, 경기부양책 규모 축소에 따른 재정지출 감소 등으로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이 -4.8%로 개선될 전망이며, IMF는 코로나19 이후 페루 정부가 재수립한 재정적자 관리목표 달성 시한인 2026년까지 재정적자/GDP 비율이 -1.4%로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음.
- 단, 2021년 초 코로나 2차 확산으로 정부가 GDP의 1.1%에 달하는 추가 부양책을 발표한 가운데, IMF는 페루 정부의 채무부담이 비교적 낮고 재정여력이 충분한 만큼, 취약계층 앞 현금 지급 등 유동성 직접 지원 방식의 경기부양책(GDP의 약 2.5% 상당) 추가 시행을 권고한 상황임.

대외거래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e
경상수지	-5,064	-2,669	-3,821	-3,531	990
경상수지/GDP	-2.6	-1.3	-1.7	-1.5	0.5
상품수지	2,173	7,090	7,513	7,028	7,750
상품수출	37,082	45,421	49,067	47,688	42,410
상품수입	34,909	38,331	41,554	40,660	34,660
외환보유액	59,769	61,425	57,930	64,919	71,571
총외채	74,645	76,499	77,787	80,089	83,867
총외채잔액/GDP	38.3	35.7	34.6	34.7	41.2
D.S.R.	20.8	28.0	17.4	18.8	21.1

자료: IMF, EIU, OECD

상품수지 흑자 및 본원소득수지 적자 감소로 GDP 대비 경상수지 소폭 흑자 달성

- 페루 경제는 구리, 금 등 광물자원 수출이 총수출의 약 60%에 달하는 원자재 의존형 수출구조로 원자재 국제가격에 따라 상품수지 규모가 좌우되고 있으며, 광산개발 기업 등 다국적 기업의 해외 과실송금 등에 따른 본원소득수지 적자 규모가 경상수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2020년에는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 및 장기 봉쇄조치에 따른 광산업 등 주요 산업 생산 위축 등으로 상품수출이 전년 대비 52.8억 달러(-11.1%) 감소하였으나, 같은 기간 소비심리 둔화에 따른 내수 위축,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연료 수입가격 하락 등으로 상품수입도 60억 달러(-14.8%) 감소하면서 77.5억 달러 상당의 불황형 상품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음.
- 한편, 해외근로자 송금 등에 따른 이전소득수지는 연 40억 달러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글로벌 기업들의 경영 침체에 따른 해외 과실송금액 감소로 연간 100억 달러를 웃도는 본원소득수지 적자폭이 2020년 66.8억 달러로 줄어들면서 GDP 대비 경상수지는 소폭 흑자 반전하였음.

구분 (억 달러)	2016	2017	2018	2019	2020 ^e
상품수지	21.7	70.9	75.1	70.3	77.5
서비스수지	-22.2	-18.2	-30.8	-35.3	-40.9
본원소득수지	-89.8	-115.2	-118.1	-107.5	-66.8
이전소득수지	39.7	35.9	35.6	37.2	40.2

자료: IMF, EIU

대외거래

- 2021년에는 글로벌 교역 재개, 제1·2위 수출대상국인 중국과 미국의 경기 회복, 구리 가격 호조 등에 힘입은 상품수출 확대분(+30.8%, EIU)이 내수 회복 및 연료 수입가격 상승 등에 따른 상품수입 증가분(+27.4%, EIU)을 상쇄하면서 상품수지 흑자폭은 10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 단, 연이은 봉쇄조치로 관광업 타격이 계속되면서 서비스수지 적자 개선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경기 회복에 따른 글로벌 기업 과실송금 재개로 2021년 경상수지는 적자 전환(GDP 대비 -0.2%, EIU)할 전망이다.
- * 상위 5개국 앞 상품수출 비중(2019년, Trademap) : ①중국(29.2%), ②미국(12.3%), ③캐나다(5.3%), ④스위스(5.0%), ⑤한국(4.9%)
- ** 2021년 경제성장률 전망(IMF) : 중국(8.4%), 미국(6.4%), 캐나다(5.0%), 스위스(2.5%), 한국(3.6%)

외채상환능력

꾸준한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등으로 외환보유액은 안정적인 수준 유지

- 페루는 지속적인 경상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친시장 기조에 따른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등에 힘입어 외환보유액 규모가 최근 수년간 600억 달러 내외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2020년에는 광산 운영 중단 등에 따른 상품 수출 감소,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외국인투자 감소 등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본드 발행 등 해외 차입 증가로 외환보유액 규모가 전년 대비 10.3% 증가한 716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추정됨.
- * 연도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UNCTAD, 억 달러) : 67.4('16) → 68.6('17) → 64.9('18) → 88.9('19) → 20.6('20, 페루 중앙은행)
- 이는 월평균 수입액의 16.9개월분 및 단기외채잔액의 6.9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2020년 5월 페루 정부가 IMF로부터 확보한 110억 달러 상당의 탄력대출자금(Flexible Credit Line, 미인출 상태) 까지 고려하면 단기 유동성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 한편, 2021년에는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재개(GDP의 약 3.3% 추정, EIU) 및 상품수출 증가 등에 힘입어 외환 보유액 절대규모 및 단기외채잔액 대비 외환보유액 비중은 각각 775억 달러, 7.5배에 달할 전망이나, 경기 회복에 따른 상품 수입수요 증가로 인해 월평균 수입액 대비 비중은 14.0개월로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

외채구조는 경제규모 대비 비교적 양호한 편

- 페루 정부는 재정적자 및 경상수지 적자 보전 등을 위한 국채 발행으로 외채잔액이 매년 소폭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의 지속적인 채무관리 노력과 국제시장에서의 우호적인 차입여건 등에 힘입어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2019년 34.7% 수준까지 감소하였음. 세계은행에 따르면 총외채의 85.4%가 중장기 채무로 구성되어 있는 등 외채구조는 비교적 양호한 편임.
- 페루는 중남미 국가 중 가장 높은 신용등급을 보유한 국가의 하나로, 저금리 채권 발행을 통해 공적 채무 재조정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2020년에는 경기부양책 재원 마련을 위한 긴급자금 조달 등으로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이 41.2%로 증가하였으나, 2021년에는 경기 회복에 따른 GDP 규모 증가, 정부의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 등에 힘입어 동 비율이 36.8%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외채상환능력

- 광물 수출에 대한 높은 의존도에도 불구하고 총수출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2019년 기준 24.8%)이 크지 않아,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약 20%에 달하고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이 100%를 넘어서는 등 다소 과중한 것으로 나타남. 단, 2021년에는 상품수출 회복에 힘입어 상기 지표가 개선될 전망이다.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e	2021 ^f
외채원리금상환액(억 달러)	92.4	151.3	100.9	107.8	100.5	97.2
D.S.R.(%)	20.8	28.0	17.4	18.8	21.1	15.7
총외채잔액/총수출(%)	168.3	141.5	134.5	139.8	175.7	133.8

자료: OECD, EIU

- 한편, 페루 정부는 2020년 4월 총 30억 달러 상당의 글로벌 본드(5년물 10억 달러, 10년물 20억 달러)를 발행한 데에 이어 같은 해 11월에도 40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본드를 성공적으로 발행하였음.
- 특히 11월 채권 발행은 비스카라 대통령 탄핵 및 후임 대통령 자진 사퇴 등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 속에서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페루 정부의 해외 시장 차입 사상 최초로 100년물 발행에 성공하고, 총 발행규모 40억 달러 대비 약 3배 가까운 주문이 들어오면서 사상 최저 수익률 발행*을 달성하는 등 정치 상황에 관계없이 투자신인도가 지속되고 있음을 입증하였음.

* 12년물(10억 달러, T+100bps), 40년물(20억 달러, T+125bps) 및 100년물(10억 달러, T+170bps)

공적채무 비중은 낮은 편으로, IMF는 채무상환능력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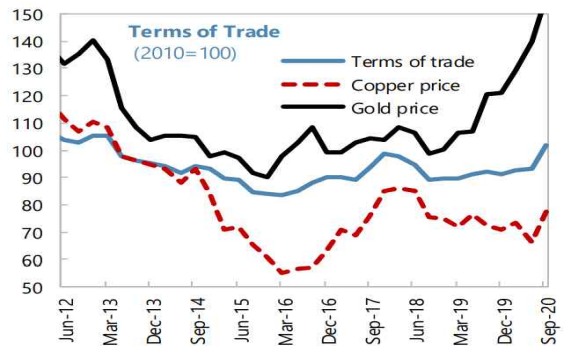
- IMF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 자원 확보 등으로 인해 페루의 GDP 대비 공적채무(국내채무 + 국외채무) 및 공적외채 비중은 2019년 27.1%, 8.5%에서 2020년 35.4%, 15.0%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단, 페루의 GDP 대비 공적채무 비중은 동일 신용등급(Fitch, BBB등급) 국가의 중위값인 52.7% 대비 낮은 수준이며, 역내 주요국과 비교 시에도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됨.
- * 공적채무/GDP 비중(2020년^e, IMF) : 칠레(32.5%), 멕시코(60.6%), 콜롬비아(62.8%), 브라질(98.9%), 아르헨티나(103.0%), 중남미 평균(75.5%)
- IMF는 2021년 3월 보고서(Debt Sustainability Analysis)에서 국내외 자본시장에서의 자금조달 능력, 양호한 채무상환 실적, 국제신용평가 3사의 투자적격등급 유지 등을 감안시 페루의 공적채무는 높은 가능성으로 지속 가능하다고 분석함. 또한, 현지 자본시장이 성숙하여 공적채무 중 외채 비중이 높지 않은 점(약 40%), 대부분의 채무가 유동성이 높고 고정금리 채권으로 발행되어 금리 리스크 노출 위험이 작은 점, 채권 평균만기가 28.4년(페루 중앙은행 기준)으로 매우 장기인 점 등은 채무상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함.
- 단, 채권자 중 비거주자 비중이 39%에 달하고, 재정수입 대비 공적채무 비중이 181%(Fitch, BBB등급 중위값 139%)로 비교적 높은 점 등은 향후 채무상환 불안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구조적취약성

광물자원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원자재 국제가격 변동 등에 취약

- 페루는 광업이 경제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원자재 국제가격 및 글로벌 경기 변동 등 외부 충격에 취약한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음.
- 2019년 기준 광물자원 부문이 GDP의 9%, 상품수출의 59%,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의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구리, 금, 아연 등 세 종류의 수출액이 전체 광물자원 수출의 약 82%에 달함.
- 원자재 국제가격이 하락했던 2014년 중반 이후 페루는 교역조건 악화 등에 따른 경제성장률 저하를 보였으며, 2018년 경제성장률 소폭 반등 이후 2019년 원자재 가격 하락세와 동반하여 경제성장률이 재차 하락하는 등 원자재 국제가격과 경제성장률 간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음.
- 광업 부문에 편중된 산업구조 다변화를 위해 정부는 농업 부문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관광업 개발 등의 노력을 전개하고 있으나, 경제구조 다변화 수준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구리 가격 및 교역조건 지수 비교



자료: IMF(March 2021)

경제성장의 필수 요소인 교통 및 통신 인프라가 취약한 수준

- 페루는 안데스 산맥이 중앙부를 관통하고 있으며, 산악 지역(30%) 및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14%)이 국토 면적의 40% 이상에 달해 육상교통 인프라 및 통신망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Fitch Solutions에 따르면 전체 도로(총연장 140,672km)의 86.7%가 비포장 상태이며, 철도(총연장 1,854km)는 리마, 쿠스코, 아레키파 등 주요 도시에서만 운행되고 있음.
- 세계경제포럼의 글로벌 경쟁력 지수(The Global Competitive Index, 2019년)에 따르면 교통 인프라 부문의 세부 항목별 순위는 141개국 중 도로 인프라 품질 110위, 철도 인프라 연결성 95위 등으로 나타났으며, 인터넷 사용자(성인 기준)는 전체의 52.5%로 141개국 중 94위에 그쳤음.
- 이에 2019년 페루 정부는 인프라 개발을 위한 종합추진계획인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교통, 통신, 에너지, 상하수도 등 우선 추진사업 52건을 발표함(주페루 대사관 자료 인용).
- 동 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 내에 기본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통(109억 달러), 하수처리(87억 달러), 보건(83억 달러) 등 335억 달러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선진국 수준의 인프라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통(488억 달러), 보건(178억 달러), 통신(62억 달러), 에너지(21억 달러) 등 1,1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매년 GDP의 4~5% 투자 필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 현재 추진 중인 주요 교통 인프라 개선 사업은 리마 지하철 3호선(70억 달러) 및 4호선(37억 달러), 중앙고속도로(31억 달러), 쿠스코 도로(1.6억 달러), 안데스 산맥 도로 정비(5억 달러) 등임.
- 한편, 2021년 1월 페루 교통통신부는 농촌 인구 1백만 명에 대한 4G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 공급을 위해 약 15.8억 솔(4.1억 달러 상당)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아울러 모바일 원격통신 서비스 개선작업에 1.3억 솔(36백만 달러)을 투입하여 240개 지역의 인터넷 접속을 가능케 할 계획이라고 덧붙임.

성장잠재력

역내 평균 대비 저렴한 노동력과 미주-아태평양을 연결하는 유리한 입지조건 보유

- 페루는 총 인구 33.5백만 명(2020년, IMF) 중 66.5%가 생산가능 인구에 해당함. 24세 이하 인구가 전체의 약 40%(42.6%)에 달하며, 특히 14세 이하의 잠재적 노동 인구가 전체의 약 1/4(25.4%) 수준으로 노동력 확보에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고 있음.
- 페루의 최저 임금수준은 월 257달러 수준으로, 이는 양호한 국제 투자신인도, 거시경제 안정성과 함께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역내 국가 비교시 칠레(441달러), 우루과이(423달러), 에콰도르(400달러), 볼리비아(309달러), 콜롬비아(261달러)보다 낮은 수준이며, 아르헨티나(243달러), 멕시코(215달러), 브라질(207달러)과 유사하여 임금경쟁력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됨.

페루의 연령별 인구분포

연령	0~14	15~24	25~54	55~64	65세 이상
총인구 대비 비율(%)	25.4	17.2	41.0	8.3	8.1

자료: CIA, The World FactBook(2020년 추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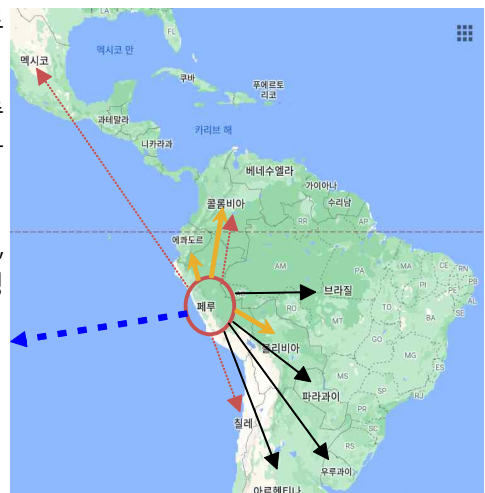
- 2019년 기준 페루의 1인당 GNI는 6,740달러로 세계은행 기준 상위중소득국(Upper-Middle-Income Countries, 4,046~12,535달러) 수준의 구매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도 리마에 전체 인구의 약 30%(9.49백만 명)가 밀집되어 있어 소비재 산업 등 내수시장 발달에 유리한 조건을 보유하고 있음.
- 한편, 남미 대륙 북서부에 위치한 페루는 북미·중미·남미 국가를 모두 연결하는 지정학적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육상교통과 달리 수상·해상교통 및 항만 인프라는 비교적 잘 발달하여 태평양 연안 국가들과의 교역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Fitch Solutions에 따르면 페루는 세계 제14위의 수상교통 국가로 수로를 이용한 남미 국가(브라질 등) 접근성이 뛰어난.
- 페루는 카야오, 마타라니, 파이타 등 3대 수출항을 비롯, 총 29개의 항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카야오 항만은 중남미 태평양 연안 항구 중 가장 큰 시설을 확보하고 있음.
- 또한, 페루는 중남미에서 가장 활발하게 FTA를 체결하는 국가로, 물리적 접근성 뿐만 아니라 조세 혜택 등 경제적 접근성 측면에서도 이점을 보유하고 있음.

* **안데스공동체** : 페루,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 **태평양동맹** : 페루, 콜롬비아, 칠레, 멕시코

*** **남미공동시장** :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페루 준회원국)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페루, 일본, 캐나다, 호주, 베트남 등 11개국



성장잠재력

다양한 광물자원 보유 및 광산업 개발 잠재력 풍부

- 페루는 구리, 금, 아연, 납, 은 등 다양하고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 노력을 감안시 향후 성장잠재력도 풍부한 것으로 평가됨.
- USGS(미 지질국) 발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구리 매장량 및 생산량은 각각 92백만 톤, 220만 톤으로 칠레에 이어 세계 2위를 점하고 있으며, 금 매장량(2,700 톤) 및 생산량(120 톤)은 세계 4위 및 세계 8위에 달함. 한편, 아연 매장량(20백만 톤) 및 생산량(120만 톤)은 세계 5위 및 세계 3위에 달하였으며, 납(매장량 세계 3위, 생산량 세계 4위), 은(매장량 세계 1위, 생산량 세계 2위), 철광석(매장량 세계 8위, 생산량 세계 14위)도 풍부함.
- 한편, 페루는 중남미 6위의 천연가스 생산국(2017년 130억 m³ 생산, CIA)이며, 확인매장량(2017년 14조 입방피트, Worldometer) 기준으로는 중남미 4위를 점하고 있어 성장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페루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들은 광물자원 중 구리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페루 정부도 2014년 복잡한 환경허가 절차 간소화, 중복되는 조항 삭제 등의 내용을 담은 신환경법을 제정하여 광산 개발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코로나19에 따른 봉쇄조치로 일시 중단되었던 광산 개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 유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구리는 전기장비 및 통신 인프라, 가전제품, 자동차, 건설장비 등 산업 전반에 사용되며, 해상풍력·육상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 구축 및 전기차(배터리) 제조시 핵심원료로 투입됨에 따라 향후에도 선진국을 중심으로 구리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 미 상무부 국제무역청(페루 정부 자료 인용)에 따르면 현재 48건(570억 달러 상당)의 광산개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구리광산 개발에만 약 409억 달러(71.8%)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됨.

페루의 광업 부문 주요 투자개발 사업(미 상무부 국제무역청, 2020.10월 기준)

투자국	프로젝트 수	비용(억 달러)	투자국	프로젝트 수	비용(억 달러)
영국	케야베코 등 6건	120	페루	미나 후스타 등 7건	45
중국	암필라시온 등 5건	101	호주	2건	30
캐나다	11건	84	브라질	5건	16
멕시코	4건	77	한국 등	4건	22
미국	케체르 마인 등 4건	75	합 계		570

- 한편, 2020년 10월 페루 정부는 2020년 말까지 리튬 및 우라늄 개발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페루 남동부에서 캐나다 광산투자 개발 기업(Plateau Energy Metals)과 함께 리튬 및 우라늄 탐사·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힘.
- 페루 남동부 푸노 지역에 매장된 리튬은 250만 톤, 우라늄은 1억 2,400만 파운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페루 내 방사선 물질 채굴 관련 법안이 부재하여 개발이 지연되어 왔음.
- 최근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리튬에 대한 전세계적인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주변국인 칠레, 볼리비아 및 아르헨티나가 이른바 '리튬 삼각지대*'를 형성하며 리튬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페루의 리튬 생산이 본격화될 경우 향후 광산업 발전경로도 다변화될 것으로 전망됨.

* USGS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세계 리튬 확인매장량은 총 86백만 톤으로, 리튬 삼각지대에 58% 분포

성장잠재력

잉카 문명 유적지 보유 등으로 코로나19 종식 이후 관광 산업 성장 가능성 높음

- 마추픽추, 쿠스코 등 잉카 문명 유적지 보유, 외국인들의 사업상 방문 확대 등에 힘입어 관광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페루 정부 또한 경제구조 다변화의 일환으로 관광 산업 성장을 정책 우선 순위로 설정하고 있음.
- 2019년 세계경제포럼의 관광 산업 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페루의 관광 산업 부문 종합경쟁력은 49위/140개국으로 종전 보고서(2017년) 대비 2계단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세부적으로는 시장개방 수준(8위), 천연자원(13위), 문화자원(16위) 등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함.
- 세계관광협회(World Travel & Tourism Council)에 의하면, 관광 산업이 페루의 GDP에 기여하는 비중은 2019년 9.3%에 달하며, 요식업, 숙박업, 운송업 등 전후방 산업을 포함한 고용창출 효과 또한 129.9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코로나19에 따른 전세계적인 이동제한 조치로 관광산업이 타격을 받은 가운데, 2021년 4월 페루 관광부는 '2021~23년 관광 부문 활성화를 위한 국가개발전략'을 발표함.
- 페루 정부의 4단계 출구전략에 따라 관광 산업은 최종 단계인 2020년 10월에 재개되었으나, 2021년 1월 코로나 2차 확산이 시작되면서 3개월 만에 영업을 중단된 바 있음.
- 한편, 상기 국가개발전략은 페루 주정부 및 지방정부 대표, 관련 공기업과의 협의 하에 수립된 것으로, 페루의 독자적인 현지 문화를 관광특화상품으로 개발하고 관광지를 다변화하는 한편, 치안 강화, 관광 서비스 및 시설 보강 등을 추진목표로 삼고 있음.

정책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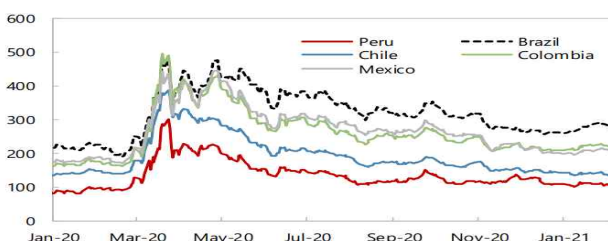
꾸준한 시장친화적 정책 추진으로 기업경영여건 개선

- 페루는 건조한 경제성장, 시장친화적 정책 등에 힘입어 매년 GDP의 약 3%에 달하는 외국인직접투자가 유입되고 있으며, 기업경영여건 또한 꾸준히 개선되고 있음.
- 세계은행에서 발표하는 기업경영여건(Ease of Doing Business) 종합순위는 2020년 76위/190개국으로, 이는 역내 주요국 중 칠레(59위), 멕시코(60위), 콜롬비아(67위)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수준임. 특히 건설 인·허가(65위, 중남미 1위), 재산권 등록(55위, 중남미 2위), 소액투자자 보호(45위, 중남미 2위), 자금조달(37위, 중남미 10위) 등 제반 행정 및 신용 획득 부문은 국제사회 및 역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
- 페루 정부는 1993년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발효한 이후 관세장벽 철폐, 시장 개방 및 거시경제 안정화 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2002년에는 민간투자 촉진·관리 전담기관인 투자청(PROinversion)을 설립하고 광물산업 부문을 중심으로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는 한편, PPP 방식의 사업 개발을 추진하여 왔음.
- 1993년 제정된 페루 헌법상 내·외국인 투자자 동등대우 원칙이 적용되어 외국인은 투자수익에 대한 세제 혜택 등과 관련하여 내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으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군수물자 제조, 희소자원 개발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에 대한 투자가 가능함. 한편, 페루 정부는 외환 관련 규제를 별도로 적용하지 않으며,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수익, 배당, 로열티 송금에 제약을 두지 않는 등 외환 안정성 및 투자안정성을 보장하고 있음.

중앙은행의 독립성 보장, 투명한 경제정책 등을 토대로 거시경제 안정성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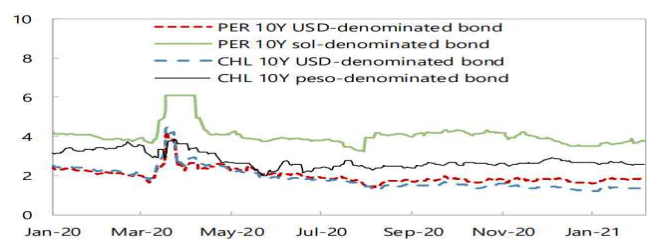
- 페루는 기업친화적 정책기조를 유지하며 국가 주요 산업 개발을 위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통화정책, 재정건전화 노력 등을 바탕으로 국제 투자자들로부터의 신뢰를 쌓아왔음.
- 세계경제포럼의 글로벌 경쟁력 지수(2019년)에 따르면 페루는 평가대상국 141개국 중 거시경제 안정성 부문에서 세계 1위(100점)로 평가받았음.
- 2020년 중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제 충격, 정부와 국회 간 갈등 고조에 따른 정치적 혼란에도 불구하고 페루 정부는 국제자본시장에서 글로벌 본드를 성공적으로 발행하였음. 아울러, 칠레, 멕시코 등 중남미 주요국 대비 EMBI(신용시장국 채권지수) 스프레드 변동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개도국 시장에서의 대규모 자본 유출이 있었던 2020년 3~4월을 제외하고는 10년물 국채 수익률(달러화·솔화)도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음.
- * 단, 4월 1차 대선에서의 급진좌파 후보 1위 등극으로 주식시장이 한때 3.2% 폭락(4.11일)하는 등 금융시장 일시 혼란

중남미 주요국 EMBI 지수 추이



자료: IMF(March 2021)

페루 vs. 칠레 국채수익률 비교(%)



정치안정

정부-국회 간 갈등 격화로 대통령 탄핵 및 자진 사퇴 등 정치적 불안정 지속

- 2016년 대선에서 변화를 위한 페루인당(Peruanos por Cambio, PPK, 중도 우파)의 쿠친스키(Pedro Pablo Kuczynski) 후보가 후지모리 케이크 민중권력당(Fuerza Popular, FP, 강성 우파) 대표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나, 여소야대 정국* 하에서 민중권력당을 중심으로 한 국회의와의 대립이 계속되는 가운데, 오데브레히트사로부터 8억 달러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회의 대통령 탄핵 표결을 앞두고 2018년 3월 사임하였음.

* 총 130석 중 FP가 73석을 차지하면서 원내 제1당으로 등극한 반면, 여당인 PPK는 18석을 확보하는 데에 그침.

- 대통령직을 승계(전임 대통령의 잔여임기인 2021년 7월까지 집권 예정)한 비스카라(Martin Vizcarra) 제1부통령은 부정부패 척결을 통한 투명한 국정 운영을 강조하고 사법부 및 정계 제도 개혁 등을 추진하였음. 단, 2018년 11월 제1야당 당수인 후지모리 또한 오데브레히트사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비스카라 대통령이 국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회의원 연임 금지 조항 등이 포함된 헌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투표를 단행*하면서 정부와 국회 간의 갈등이 고조되었음.

* 2018년 12월 '국회의원 연임 금지', '사법위원회 개혁',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대한 처벌 강화', '양원제 복원' 등 4개의 안건이 포함된 헌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양원제 복원 이외의 3건이 가결되었음.

- 정부의 반부패 개혁 노력에 국회가 지속적으로 제동을 거는 가운데 2019년 9월 비스카라 대통령은 국회의 행정부 불신임을 근거로 헌법에 따라 국회를 해산하였으며, 이에 국회의원들은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였으나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됨.
- 비스카라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80%를 웃도는 가운데, 2020년 1월 치러진 총선(국회의원 임기는 1년 3개월로 제한)에서는 총 9개 정당(총선 6개 정당)이 국회에 진출하였으며, FP(15석)가 소수당으로 전락하고 민중행동당(Acción Popular, AP, 중도 좌파)이 제1야당(25석)으로 등극하는 등 국회 구성이 파편화되었음.

- 2020년 10월 비스카라 대통령에 대한 부패 스캔들*이 제기된 이후 2020년 11월 9일 국회는 찬성 105표(총 130석)로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마누엘 메리노 국회의장이 임시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음. 국회의 결정에 반대한 시민 수만 명이 리마, 쿠스코 등 주요 도시에서 탄핵 반대 시위를 단행하였으며, 시위 진압 과정에서 수십 명의 사상자가 속출하자, 메리노 국회의장이 취임 6일 만에 임시 대통령직에서 자진 사퇴하였음. 11월 16일 페루 국회는 중도정당(Partido Morado, PM) 출신의 중진의원인 사가스티(Francisco Sagasti)를 임시 대통령으로 재선출하였음.

* 2011~14년 모케구아 주지사 재직 당시 공공사업 계약을 대가로 203만 솔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 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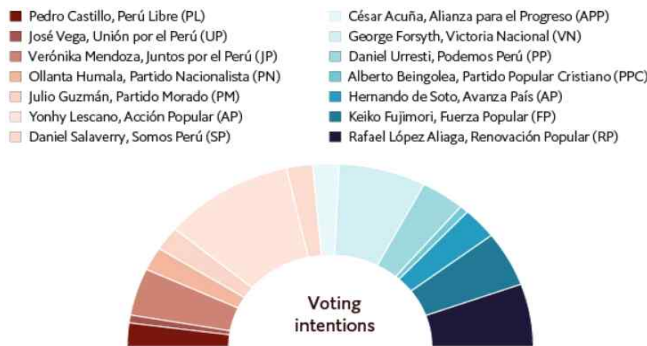
- EIU는 사가스티 대통령이 코로나 조기 종식 및 경기 부양에 초점을 맞추면서 2021년 7월까지 임기를 끝마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최근 고위급 정치인들의 '백신 게이트 사건'로 인해 국회 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실망감이 한층 고조되어 신규 개혁정책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음.
- 2021년 2월 페루 정부 발표에 따르면 비스카라 전 대통령, 전임 보건장관 및 외무장관 등 정부 고위급 인사와 친인척 총 471명이 일선 의료진 접종용으로 구매한 시노팜 백신을 새치기 접종한 것으로 확인됨.

정치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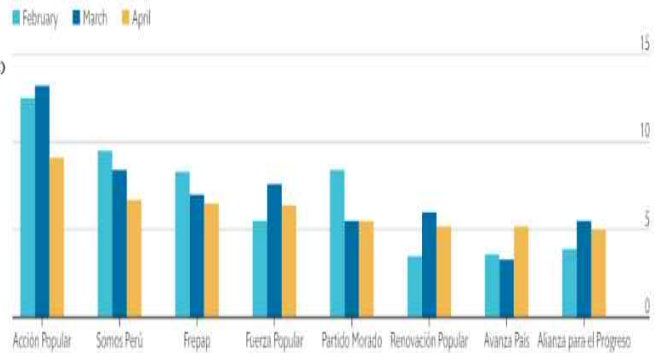
총선 및 대선 결과 불일치시 차기 정권도 개혁정책 추진에 난항 예상

- 정부와 국회 간의 반목 지속, 전직 대통령 및 고위급 정치 관계자들의 부정부패 사건 연루, 정부의 코로나 확산 억제 실패 등으로 정치적 실망감이 고조된 가운데, 총 18명의 대선 후보 중 대선일(4.11일) 직전까지 지지율 10% 이상을 확보한 후보가 없는 등 대선 향방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 연출되었음.

대선후보별 지지율 예측도(지지율 1% 이상만 집계)



정당별 지지율 예측도(지지율 5% 이상만 집계)



자료: EIU, Peru Country Report, April 2021

- 대선 직전에 시행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좌파와 우파 진영에 대한 지지율이 비슷한 비율로 배분되었으며, 중도좌파인 AP의 레스카노(Yonhy Lescano) 후보가 선두를 점한 가운데, 국가승리당(Victoria Nacional, 중도우파)의 포르사이트(George Forsyth) 후보와 민중혁신당(Renovacion Popular, 강성 우파)의 알리아가(Rafael Lopez Aliaga) 후보가 그 뒤를 잇는 것으로 나타났음.
- 한편, 대선과 동시에 치러지는 총선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도 20개 후보 정당 중 어느 곳도 10% 이상의 지지율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차기 정권에서도 국회가 파편화될 것으로 예측되었음.
- 4월 11일에 치러진 1차 대선 결과, 당초 예측과는 달리 급진좌파인 카스티요(Pedro Castillo) 후보가 득표율 1위(약 19%), 강성 우파인 후지모리 FP 당수가 득표율 2위(약 13%)를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음(개표율 96%, BBC, 2021.4.13자). 페루자유당(Peru Libre) 소속의 카스티요 후보는 노조 위원장 출신으로 헌법(1993년) 개정을 통한 기업 등 기득권층의 권력 재배분, 광업·가스·석유·수력·통신 산업 등에 대한 국가 개입 강화 등을 주장하고 있음. 단, 1위 후보가 과반 득표율에 실패하여 1·2위 후보에 대한 결선투표(6.6일)를 통해 당선자를 확정짓게 됨.
- 한편, 같은 날 치러진 총선에서는 득표율 5% 이상을 확보하여 국회에 입성한 정당이 10 개 내외에 달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나, 어느 정당도 과반석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됨.
- 한편, EIU는 차기 정권이 헌법 개정을 통한 정치·사회 개혁, 코로나 팬데믹 극복 등의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현 정권의 사례에서 보듯이 집권여당이 국회 내에서 충분한 의석 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정책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데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EIU는 다수의 정당이 국회 내에 난립하는 점, '국회의원 연임 금지' 조항에 따라 선출된 신임 의원들이 정책 입안 경험 부족으로 근시안적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 등을 지적하면서, 불안정한 정치적 지형에 따른 정책 효율성 저하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음.

사회안정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정부패 만연

- 정부의 친시장 정책과 다양한 광물자원, 젊고 풍부한 노동력, 유리한 입지조건 등 높은 성장잠재력을 바탕으로 외국인투자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으나,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부정부패 이슈는 투자의 주요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음. 페루 감사원(2020.6월)은 부정부패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연간 64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음.
- 페루의 부패인식지수(국제투명성기구, 2020년)는 180개국 중 94위에 그쳤음. 이는 부정부패 척결에 전력을 기울인 비스카라 대통령 취임 직후(2018년 105위/180개국)와 비교시 개선된 수치이나, 칠레(25위), 아르헨티나(78위), 콜롬비아(92위) 등 주변국 대비 낮은 수준임.
- 2016년 미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오데브레히트사가 2015~14년 중 페루 공직자들에게 29백만 달러 상당의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툴레도(2001~06년), 가르시아(2006~11년, 체포 직전 자살), 우말라(2011~16년), 쿠친스키(2016~18년) 등 전직 대통령 4명이 뇌물 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음.
- 금번 대선 1차 투표에서 득표율 2위를 달성한 후지모리 후보 또한 2011년 대선 당시 오데브레히트 사로부터 선거자금을 제공 받은 혐의로 2018년 11월 구속된 바 있음.
- 페루 정부는 반부패 계획(2018~21)을 통해 부패 척결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특히, 비스카라 전 대통령은 정부의 투명성 제고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2018년 국민투표를 통해 국회의원 연임 금지, 정치자금법 개혁, 사법위원회 개혁 등의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음.
- IMF는 2021년 Staff Report에서 사법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200여 개 공공기관 내 윤리감독기구 설치 등의 부패 척결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음. 한편, 정치권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고조된 만큼, 후임 정권도 부패 척결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울 것으로 예상됨.

광산, 에너지 개발 반대 등 시위 발생

- 페루는 광산 및 에너지 개발사업으로 파생되는 토지 보상, 거주민 이전 문제 등으로 지역 주민들의 반대 시위, 근로자 파업 등이 빈발하면서 사회불안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실업 증가 및 소득 감소로 사회적 실망감이 대두됨에 따라 반정부 시위 발생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 2016~17년 중 페루 최대 구리생산회사 중 하나인 라스 밤바스(Las Bambas)에 대한 광산개발 반대 시위로 사망자 3명이 발생하였으며, 2020년 7월에도 동사에 대해 경제적 혜택을 요구하는 시위대의 공격이 이어졌음. 한편, 에스피나르 지역의 안타파카이(Antapaccay) 광산기업에서도 코로나19에 따른 봉쇄조치로 소득이 감소한 근로자들이 연대보상금 제공 시위를 벌인 바 있음.
- 2020년 11월에는 비스카라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였으며, 2020년 12월에는 임금 인상과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농민들이 버스와 트랙터로 고속도로를 점거하였음.
- IMF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실업률(리마 기준)은 2019년 6.6%에서 2020년 13.6%로, 같은 기간 빈곤률(일일 소득 5.5달러 미만)은 21.7%에서 27.5%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며,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정부가 충분한 사회안전망 확충에 실패할 경우 반정부 소요 사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사회안정

코카인 등 불법 마약거래로 인한 치안 불안 가능성 상존

- 페루는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 등 주변국에 비해 갱단을 중심으로 한 조직범죄 위협은 크지 않은 편임. 단, 콜롬비아, 볼리비아와 함께 중남미 3대 코카인 생산지로, 아푸리막 강, 에네 강, 만타로 강 계곡지역("VRAEM")을 중심으로 코카(coca)의 불법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반정부 사회주의 조직인 '빛나는 길'(Shining Path)과 연계되어 치안 불안을 야기하고 있음.
- 세계경제포럼의 글로벌 경쟁력 지수(2019년)에서 전체 141개 평가대상국 중 테러 발생 순위 92위, 인구 10만 명 당 살인을 108위에 해당하는 등 범죄 피해 관련 세부순위는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음.
- 이에 페루 정부는 코카 경작면적 축소, 대체 작물(코코아, 커피, 팜유 등) 경작 지원 등 코카 재배 근절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음.
- 한편, 페루 정부는 아야쿠초, 쿠스코 등 테러 취약지역(4개)을 비상관리지역으로 선포하는 한편, 경찰 조직 확대 및 현대화, 범죄 예방·관리시스템 개선 등 치안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Fitch Solutions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정부 관료 및 시민을 대상으로 한 테러 위협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됨.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신용영향점수는 개도국 중 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

- Moody's¹⁾는 ESG 요소가 페루의 정부채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이 단기적으로는 제한적이거나,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일 수 있다고 보고, ESG 신용영향점수(ESG Credit Impact Score)를 3등급(Moderately Negative)으로 평가하였음. Moody's의 평가대상 개도국 총 107개국 중 2·3등급(1등급 전무) 해당국가는 42개국임.
- * Moody's는 ESG 등급을 1(긍정적)~5(매우 부정적)의 5단계로 구분하고 있음. 2021.1월 Moody's 발표자료에 따르면 동사의 평가대상 144개국은 1등급 11개국(우리나라 등), 2등급 30개국(미국 등), 3등급 38개국(일본·중국 등), 4등급 45개국(베트남·인도 등), 5등급 20개국(이라크·베네수엘라 등)으로 분류됨. 특히, 선진국에 비해 지배구조(Governance)가 취약한 개도국의 경우 전체 107개국 중 65개국이 4·5등급에 분포되어 ESG 영향이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환경)** 엘니노 현상에 따른 가뭄과 홍수 피해 등 기후변화 영향에 노출되어 있으나, 재해 발생간격은 10년 이상으로 길어 농업 등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임. 단,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발생시 인프라 복구를 위한 대규모 재정지출이 요구되므로 환경(Environmental) 영향은 다소 부정적(3등급)으로 평가됨.
- **(사회)** 페루는 여타 중남미 국가와 달리 정치·사회적 불안요인이 대규모 시위로 이어진 사례가 많지 않음. 단, 불평등한 소득구조, 높은 비공식경제 부문 비중(전체 근로자의 70% 이상), 위생·보건·교육 등 기본 인프라의 낮은 질적 수준 등은 광산 개발 반대 시위를 촉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따라 사회(Social) 영향은 다소 부정적(3등급)으로 평가됨.
- **(지배구조)** 페루의 신뢰성 있고 투명한 거시경제정책은 부정부패, 정치적 분란, 취약한 사법제도 등으로 대표되는 비효율적 정치구조의 한계를 상쇄하고 있음. 이에 따라 페루의 지배구조가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2등급)으로 평가됨.

1) Moody's Investors Service, Credit Opinion: Government of Peru - A3 stable, February 2021

국제관계

주요 교역국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대외개방 경제정책 추진

- 페루는 중남미에서 경제가 가장 개방적인 국가 중 하나로, 정부는 글로벌 시장으로의 조속한 편입을 위해 전 세계 50개국 이상과 FTA*를 체결하는 등 적극적인 대외개방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 한국, 미국, 중국, EU, 일본, EFTA, 캐나다, 태국, 멕시코, 칠레,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베네수엘라 등
- 페루는 미국(2009년), 중국(2009년), 한국(2011년)*, EU(2012년) 등 주요 교역대상국과 FTA를 체결하여 경제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으며, 인도, 터키, 엘살바도르 등과도 FTA 협상을 진행하는 등 FTA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임. 아울러 덴마크,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등 32개국과 양자간 투자보장협정도 체결하였음.
- * 페루는 칠레에 이은 중남미 내 두 번째 FTA 체결국으로, 2019년 기준 우리나라는 페루의 제5위 수출대상국이자 제4위 교역(수출+수입)대상국임.
- 중남미 내에서는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안데스공동체(CAN) 등의 회원국으로 활동하면서 지역 통합을 강화하고 역내 경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태평양동맹(2012년)은 페루, 멕시코, 콜롬비아, 칠레 등 4개국이 참여하는 경제 협력체로 중남미 총 GDP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역내 재화, 서비스, 복지, 자본 및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 도모, 회원국간 균형적인 경제성장 도모, 아태평양 지역에 중점을 둔 정치 협력을 위한 플랫폼 역할 등을 목표로 삼고 있음. 현재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싱가포르와 준회원국(태평양동맹과 양자 FTA 체결을 의미) 가입 교섭을 진행 중이며, 우리나라와 에콰도르도 준회원국 가입을 표명한 상태임.
 - 안데스공동체(1996년)는 페루,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등 4개국이 참여하며 회원국 간 일반관세를 철폐하고 2004년부터 대외 공동관세를 적용하고 있음.
- 한편, 페루는 1998년부터 APEC 포럼에 정회원국으로 참여하여 왔으며, 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통합을 목적으로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에도 참여하는 등 중남미 지역을 넘어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지역에서의 입지 강화를 도모하고 있음.
 - *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브루나이,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등 11개국

중국과의 협력관계 강화

- 중국은 페루의 최대 교역대상국이자 광산 개발 부문에 대한 최대 투자국임. 2019년 페루가 일대일로(Belt and Road) 사업 참여를 확정된 이후 양국의 경제협력 관계가 확대되었으며, 최근 중국으로부터 시노팜 백신 38백만 회분 공급*을 약속받으면서 유대관계가 한층 공고해졌음. 양국은 2009년 기 체결된 FTA 조약을 재협상 중으로, EIU는 차기 정권의 정치적 성향에 관계없이 중국과의 협력관계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음.
- * 페루의 일일 코로나 확진자 수는 2021년 들어 다시 증가하면서 4월 1일(12,916명) 최고치를 기록하였음. 누적 확진자 수는 165만 명(2021.4.12, 세계 17위)으로, 정부는 코백스 퍼실리티(13.2백만회 분)를 통해 백신을 확보한 이외에 중국 시노팜(38백만회 분), 인도 아스트라제네카(14백만회 분), 미국 화이자(9.9백만회 분) 등과 백신 수급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2월부터 자국민 대상 백신 접종을 시작하였음(2021년 말 접종 완료 목표).

외채상환태도

양호한 외채상환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OECD 회원국 ECA 앞 연체비율은 미미

- 페루는 1980년대 중남미 외채 위기 당시를 포함하여 1996년까지 파리클럽과 총 8번의 채무재조정 (총 149.3억 달러)을 실시하였음. 단, 2005년(20억 달러) 및 2007년(25억 달러)에 파리클럽 채무를 조기상환 하면서 글로벌 채권자들로부터의 신뢰 회복을 도모하였으며, 2021년 4월 현재 채무재조정 잔액은 전액 상환한 상태임.
 - 2020년 9월 말 기준 OECD 회원국 ECA 지원잔액 51억 달러(단기 15.1억 달러, 중장기 35.9억 달러)* 중 연채잔액은 1.8백만 달러(연체비율 0.04%)에 불과함.
- * 스페인(20.5억 달러), 캐나다(16.6억 달러), 이탈리아(10.7억 달러) 등 20개 ECA 지원 중
- 한편, 미 수은, 독일 Hermes, 영국 UKEF 등 주요 ECA들은 단기 및 중장기 자금 모두 원칙적으로 인수 가능하며, 영국 UKEF의 경우에는 중장기 자금을 대해 현지화 인수도 취급 가능하다는 입장임.

국제시장평가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당 행	C1 (2021.04)	B2 (2020.10)
OECD	3등급 (2020.10)	3등급 (2019.10)
Moody's	A3 (2014.07)	Baa2 (2012.08)
Fitch	BBB+ (2020.12)	BBB+ (2013.10)

OECD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3등급 유지

- OECD는 2008년 페루의 높은 경제성장세, 교역상대국 다변화, FDI 유입 증대, 양호한 외채상환태도 등을 고려하여 종전 4등급에서 3등급으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한 이후 현재까지 동일 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국제신용평가사도 2008~2009년부터 투자적격등급 부여

- 2008~2009년 중 Fitch(BBB-, 2008년) 및 Moody's(Baa3, 2009년)는 페루에 처음으로 투자적격등급을 부여하고 신용등급을 꾸준히 상향 조정하였으며, 2013~14년 중 부여한 신용등급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음.

국제시장평가

- Moody's(2021.2월 보고서)는 중앙은행 등 경제 관련 부처의 독립적인 정책 운용, 재정특별법 등에 따른 지속적인 재정건전화 노력, 금융산업 안정성, FTA를 통해 확보한 다변화된 교역시장 등이 경제정책의 예측가능성 및 지속성을 담보한다고 설명함. 또한, 정부의 낮은 채무 부담, 풍부한 외환보유액 규모, 글로벌 자본시장을 통한 양호한 대외차입능력 등은 대외충격 흡수기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하였음. 단, 높은 비공식경제 부문 비중과 정치적 혼란은 정책 건전성 및 효율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함.
- 단, Moody's가 페루에 대한 등급전망을 안정적(stable)으로 유지하는 것과 달리, 2020.12월 Fitch는 페루의 신용등급 전망을 종전 안정적(stable)에서 부정적(negative)으로 하향조정하였음. 이는 코로나 극복을 위한 대규모 경기부양책 시행으로 최근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점, 국회의 포퓰리즘 성향의 정책 입안으로 정책 예측 가능성이 저하된 점 등을 반영한 것임.

- 페루는 중남미 국가 평균 대비 안정적인 경제성장률과 물가수준을 유지해 왔으며, 정부의 친시장정책 지조, 재정특별법 등에 따른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 중앙은행 등 경제부처의 독립성을 바탕으로 한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거시경제 운용 등에 힘입어 글로벌 투자신인도를 제고하고 외국인투자여건을 개선하여 왔음.
-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간의 봉쇄조치에 따른 산업활동 및 내수 위축 등으로 역대 주요국 대비 가장 낮은 경제성장률(-11.1%)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단, 2021년에는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경기 회복 전망, 주요 수출품목인 구리의 국제가격 상승세 등에 힘입어 외국인투자 및 산업생산이 재개되는 등 경기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광업부문에 대한 높은 경제의존도로 인해 원자재 국제가격 변동 및 다국적 기업의 과실송금 규모 등에 의해 경상수지가 좌우되고 있음. 단, 정부의 채무부담이 낮은 편이며, 안정적인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및 해외 차입시장에 대한 높은 접근 가능성 등을 바탕으로 월평균 수입액의 14개월(2021년 전망)에 달하는 풍부한 외환보유액을 확보하고 있어 단기적인 외화 유동성 위험은 제한적임.
- 다양한 광물자원 및 관광자원, 풍부한 노동력 및 유리한 입지조건, 정부의 적극적인 대외개방경제 정책 등은 페루의 장기 성장잠재력을 뒷받침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함. 단, 부정부패 만연, 치안 불안, 시위 등 소요 사태로 인한 사회불안 요소가 잠재하는 가운데, 최근 정부와 국회 간 갈등 격화로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임.
- 신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부패 척결 노력,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 운용 등이 페루의 지속적인 성장과 대외신인도 제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